

2018년도

-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I . 연수개요	1
1. 연 수 국 가	1
2. 연 수 목 적	1
3. 연 수 기 간	1
4. 연 수 자 명 단	1
5. 연 수 세 부 일 정	2
II . 방문국 현황	4
1. 호 주	4
2. 뉴 질 랜 드	5
III . 연수지역 및 주요 연수내용	6
1. 주 요 도 시 현 황	6
2. 주요 연수내용 및 시사점	8
IV . 연수후기 및 자체 간담내용	23

I. 연수개요

1. 연수국가 : 호주, 뉴질랜드

2. 연수목적

- 가. 선진국 우수사례 학습, 시설·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 기법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효율적 시정 정책 제안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세계적인 관광 대국인 호주, 뉴질랜드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등의 관광자원화 활용현장 방문으로 우리시에 접목가능한 방안 연구

3. 연수기간 : 2018. 9. 5. ~ 2018. 9. 13(7박 9일)

4. 연수자 명단 : 13명(의원 9명, 수행직원 4명)

번호	직책	성명	비고
1	익산시의장	조 0 대	
2	부의장	윤 0 숙	
3	보건복지위원장	박 0 원	단장
4	부위원장	오 0 선	
5	위원	강 0 숙	
6	"	김 0 연	
7	"	김 0 규	
8	"	유 0 동	
9	"	임 0 택	
10	전문위원	박 0 수	
11	수행직원	송 0 영	
12	"	송 0 석	
13	"	이 0 하	

5. 연수세부일정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표	비고
제1일 9/5 (수)	익 산 인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출발 ▶ 인천 국제공항 출발 	한국
제2일 9/6 (목)	시드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 국제공항 도착 ▶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견학, 상호 교류 실시 ▶ 《역사문화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유산 블루마운틴 등 탐방 	호주
제3일 9/7 (금)	시드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사우스웨일스 공공 도서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건축 양식, 운영 방식 등 벤치마킹 ▶ 《역사문화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유산 오페라하우스 등 탐방 	호주
제4일 9/8 (토)	시드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 사가지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특성화된 관광 자원 채득 	호주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표	비고
제5일 9/9 (일)	시드니 오클랜드 로토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 국제공항 출발 ▶ 오클랜드 도착 ▶ 로토루아 이동 	호주 ↓ 뉴질랜드
제6일 9/10 (월)	로토루아 해밀턴 (캠브리지) 로토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브리지 복지기관(양로원) 방문》 - 운영 시스템 견학을 통해 우리시 접목 가능한 활용 방안 모색 등 ▶ 《로토루아 시가지 탐방》 - 우리시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등 	뉴질랜드
제7일 9/11 (화)	로토루아 (타우포) 해밀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우포 지열발전소 견학》 - 온실가스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발전소 ▶ 《해밀턴 폐수처리장 방문》 - 운영 시스템 견학을 통해 우리시 접목 가능한 활용 방안 모색 등 	뉴질랜드
제8일 9/12 (수)	로토루아 오클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토루아 시청사 견학》 - 우리시 신청사 건립시 제공할 아이디어 창출 ▶ 《로토루아 구시가지 탐방》 - 우리시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등 ▶ 오클랜드 이동 	뉴질랜드
제9일 9/13 (목)	오클랜드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클랜드 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뉴질랜드 대한민국

II. 방문국 현황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국 명 :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 위 치 : 오세아니아 대륙
- 면 적 : 7,741,220km² (세계6위, 한반도의 약35배, 남한의 80배)
- 건 국 일 : 1901년 1월 26일(호주 연방 자치령 지정, 독자적인 헌법 제정)
- 행정구역 : 6개 주와 3개의 준주, 6개의 특별지역
- 수 도 : 캔버라
- 인 구 : 2,477만 명 (2018년 추정치)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영연방의 일원)
- 주요도시 : Canberra(40만 명), Sydney(537만 명), Melbourne(495만 명),
Brisbane(210만 명), Adelaide(120만 명) 등
- 민 족 : 유럽계(85%), 아시아계(9%), 원주민(3%), 아랍계(1.4%),
- 언 어 : 영어, 원주민어
- 의 회 : 상·하 양원제
 - 상원: 76석 / 하원: 150석
- 주요정당 : 호주노동당, 호주 보수연립 등
- 국내총생산(GDP) : 1조 5,002억 달러(1인당 5만 9,655 / 2018년)
- 종 교 : 가톨릭(22.6%), 성공회(13.3%), 개신교(16.3%), 불교(2.4%),
이슬람교(2.6%), 힌두교(1.9%) 등
- 화폐단위 : Australia Dollar(A\$)

뉴질랜드

- 국 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위 치 : 대양주 남단
- 면 적 : 270,534km² (한반도의 약1.2배, 남한의 2.5배)
- 건 국 일 : 1840년 2월 6일(영국으로부터 독립)
- 행정구역 : 16개 Region(지방)으로 분류
- 수 도 : 웰링턴
- 인 구 : 443만 명 (2015년 추정치)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주요도시 : Auckland(150만 명), Wellington(39만 명), Christchurch(38만 명), Hamilton(21만 명) 등
- 민 족 : 유럽계(61.2%), 마오리(13.3%), 아시안(8.3%), 남태평양도서국(6.2%), 기타(10.9%)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원주민어)
- 의 회 : 의원내각제
 -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121석
- 주요정당 : 국민당(보수), 노동당(진보) 등
- 국내총생산(GDP) : 2조 1,100억 달러(1인당 5만 7,885, 2017년 1분기)
- 종 교 : 가톨릭(44%), 기독교(29%), 무슬림(1.9%), 그리스정교(1.6%), 유대교(1.1%), 기타(5.9%), 무교(16.5%)
- 화폐단위 : New Zealand Dollar(NZD)

III. 연수지역 및 주요 연수내용

1. 주요 도시현황

■ 시드니

-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초이자, 최대의 도시, 수도가 아넘에도(수도는 캔버라) 세계적으로 수도로 잘못 인식되고 있을 만큼 전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 시드니의 이름은 영국의 각료인 시드니경의 이름을 딴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개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여 천혜의 자연 환경과 교통 발달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금광이 발견된 이후 인구가 급증, 대도시로 발전
-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 정도의 대도시이자 호주 경제의 최고 중심 도시인 시드니에는 호주의 상위 500개 회사 중 48%가 위치
- 경제, 교통, 교육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중심이자 최고의 도시. 특히 시드니대학교는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와 함께 호주 TOP3의 명문
- 교민의 수는 약 7만명, 유학생을 비롯한 단기 체류자까지 합하면 약 14만명의 한인이 거주
- 온화한 기후로, 연간 평균기온 21.9℃, 가장 더운 달이 26.5℃, 가장 추운 달이 17.4℃일 정도로 연교차가 적다.
-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관광지인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는 하루에도 수만명 정도가 방문

■ 오클랜드

- 남과 북의 섬으로 나뉘어져 있는 뉴질랜드의 북섬에 위치한 북섬 최대의 도시이자,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 인구는 약 140만 명으로, 뉴질랜드 인구의 30% 이상이 오클랜드에 거주
- 1865년까지 뉴질랜드의 수도였다가, 국토 균형을 이유로 웰링턴으로 천도 수도의 지위를 상실
- 뉴질랜드의 8개의 국립대학 중 3개가 위치할 정도로 뉴질랜드 교육의 중심도시이자, 특히 오클랜드대학교 대학이 유명.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를 간직한 도시
- 2017년 한 설문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3위에 꼽힐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도시

■ 해밀턴

- 뉴질랜드 북섬의 중반에 위치한 와이카토 지방 최대의 도시
- 도시 중심에 와이카토 강이 흐르고 있으며, 뉴질랜드 북섬에서 3번째, 뉴질랜드 전체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 본래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살던 곳이었으나 영국인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도시로 성장
- 도시 중심에 위치한 와이카토 강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관광 자원을 형성. 도시 곳곳에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
- 주요 산업은 농업기계, 농업가공, 피혁 등으로 농촌도시로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로토루아

- 로토루아의 첫인상은 “냄새”. 활화산 지대로서, 진흙뚝과 간헐천은 특쓰는 유황 냄새를 강하게 풍긴다.
- 도착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도시. 지금도 하루 수천명의 사람들이 마오리족의 전통을 느끼기 위해 이 도시를 방문
- 현재는 유황 온천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 “로토루아”는 마오리 언어로 “두 개의 호수”라는 뜻

2. 주요 연수내용 및 시사점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블루마운틴 견학을 통해 호주의 선진 관광정책에 대한 비교견학으로 우리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
- 공공기관인 도서관과 주의회 청사가 지역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게 만든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시의 도서관 등 공공기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인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지난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 유칼리나무로 뒤덮인 해발 1,100M의 사암 고원인 블루마운틴은 멀리서 보면 푸른색을 띄어, “블루마운틴”으로 명명되었다고 한다.

- 엘리베이터식 산악열차, 케이블카, 트레킹코스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고원 곳곳이 사암 침식으로 형성된 수직 절벽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 비교적 도심과 가까워(시드니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 생활의 지친 현지 호주인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



블루마운틴 전경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블루마운틴

■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New South Wales Legislative Assembly)

- 호주의 주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원의 임기는 8년, 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하원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인 단일 선거구를 대표하고 있음.
- 시드니 중심가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 청사는 의회 의사당답게 주변 높은 빌딩과는 다른 고풍스럽고 역사를 보여주는 청사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회의 기간에는 일반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의 회의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회의 기간에는 의사당 청사 관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주의회의 주된 역할은 주정부에 대한 견제를 기본으로 하여 주민에 대한 복지, 환경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복지 선진국답게 장애인, 아동, 실업자 등 소수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 청사

■ 뉴사우스웨일스 주립(공공)도서관(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 1826년에 완공된 고전적인 빅토리아 양식 도서관으로 놀랍게도 시드니에서 오페라하우스에 맞먹는 랜드마크로서의 지위를 얻고 있다고 한다.
- 뉴사우스웨일스 주 뿐만 아니라 호주 전체의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정도의 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사암으로 만들어진 정문의 돌기둥이 인상적이며 미첼도서관 열람실은 자연 채광이 쏟아지는 것으로 유명.
- 도서관의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자, 지난 1983년 신관을 개관 현재는 구관과 신관(인접해 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NSW 공공도서관 정문



열람실 모습

◎ 소감 및 시사점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세자매봉(The Three Sisters)로 대표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50도 이상의 경사를 자랑하는 관광열차(레일웨이) 및 케이블카 등의 관광객 체험기구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 특히 레일웨이는 인위적인 관광용 기구가 아닌 실제 예전 현지 광부들이 사용했던 것을 재현한 것이고, 지금도 당시 광부들이 사용했던 열차가 보존되어 있다.

- 우리 연수단이 블루마운틴을 보고 가장 놀란 점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의 천혜의 자연환경도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자연환경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현대화시킨 호주인들의 아이디어였다.
- 흔히 익산시에는 관광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시에도 미륵산, 함라산 등의 전국적으로 관광객 유치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산악 자원도 있다. 개발을 최소화한다는 점은 배워야 할 것이나, 보존은 보존대로 하되, 일부 편의시설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단순 등산을 넘어서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활용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우리시 일행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뉴웨일스주(호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의 공공기관인 도서관과 주의회가 단순 공공기관을 넘어서서 관광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 특히, 주립(공공) 도서관의 경우 현지인의 학습공간, 휴식공간의 틀을 넘어서서 호주를 찾은 전세계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었고,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에 버금가는 시드니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각종 테마를 배경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점은 청사 건립부터 천편일률적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더욱 특기한 것이었다.
- 우리시도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영어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시립도서관 측에 많이 전달하여, 우리시 도서관이 전국지자체에서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리시에서도 도서관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다. 누구나 쉬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좀더 친시민적인 도서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 내부 모습이다. 흔히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도서관 같이 열람실 안에 장서들이 보관되어 있어, 고풍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 주의회 청사 또한, 의회 특유의 청사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회기 기간 중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시 공공기관 역시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고 언제든지 찾고 싶은 장소가 되도록 다양한 방안 창출해야 할 것이다.

-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마이클 조셉 세비지 메모리얼 파크 등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광 자원 및 랜드마크를 활용하여 연간 수백만명이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도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 관광 자원 개발 및 지역 랜드마크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된 익산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우리시 관광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방안 모색

오페라 하우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남반구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인 시드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꼽히는 오페라하우스는 1959년 착공하여, 1973년에 완공되었다. 건축가는 덴마크 출신으로 국제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한 요른 웃손이다.

- 시드니항의 요트를 모델로 한 지붕으로 더욱 유명하며 개관식 때는 호주가 속한 영연방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테이프를 잘랐다고 한다.
- 지난 2007년 인류가 만든 세계 속의 걸작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으며,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여신상 등과 함께 현대 인류가 탄생시킨 최고의 구조물로 공인받고 있다.
- 1,500여석의 오페라 극장과 2,600여석의 음악당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 속의 명소이다.



오페라하우스 전경



오페라하우스 내부모습

■ 하버브릿지

- 시드니 중심에 위치한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아치교인 시드니 하버브릿지는 오페라하우스 다음가는 호주 최고의 명소이다.
- 아치형의 생김새로 인해 현지인으로부터는 하버브릿지라는 본래의 이름보다 “웃결이”라는 별칭으로 더 불린다고 한다. 1932년 개통되었으며,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였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 현지 주민에게는 산책로로 관광객에게는 전망대와 더불어 반드시 사진을 찍어야만 하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141m의 교량을 오르는 “브릿지 클라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버브릿지



하버브릿지와 시드니의 빌딩숲

■ 마이클 조셉 세비지 메모리얼 파크

- 마이클 조셉 세비지 메모리얼 파크는 1930년대 뉴질랜드 수상으로 뉴질랜드를 현재의 복지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초석을 다진 마이클 조셉 세비지를 기리기 위해 조성.
- 마이클 조셉 세비지 수상은 지금도 뉴질랜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잘 가꾸어진 공원과 많은 현지인들의 방문만 봐도 그가 얼마나 뉴질랜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메모리얼 파크 입구



마이클 세비지 기념탑

파크에서 바라본 오클랜드

◎ 소감 및 시사점

- 연수 중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광자원을 일부 엿볼수 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세계인들인들이 찾는 관광대국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단순히 자연경관에만 기대지 않고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었다.
-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오페라하우스는 현대 구조물 가운데 세계에서 수위를 다툼만한 곳이었다. 호주인들은 프랑스에 에펠탑이 있다면, 호주에는 오페라하우스가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 건립 당시, 예정보다 많은 건축비와 공사기간이 소요되면서 수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독창적이 구조물을 완성해 매년 수백만명이 찾는 호주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하니, 정말로 대단하게 생각되었다.
- 하버브릿지 또한 단순한 교통물을 넘어서서 관광지가 되었다. 다리 양쪽에 넓찍한 인도로 현지인과 관광객이 호주 야경을 보면서 걸을 수 있고, 비용을 지불하면 브릿지 꼭대기까지 오를 수(클라임) 있다고 한다.
- 마이클 조셉 세비지 메모리얼 파크인 경우 어쩌면 단순 공원일 수 있었던 곳에 역사와 의미를 부여 공원 이상의 곳으로 승화시킨 곳이었다.
- 우리시에는 우선 시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가 전무한 실정인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당장 어려울지라도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익산하면 어떠한 곳을 생각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공원, 다리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해 스토리 메이킹을 한다면 좀더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전국적인 관심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동문배드민턴장 또한 그러한 예이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배산 실내체육관이라는 이름 보다는 지역의 대표 인물의 이름을 딴 김동문배드민턴체육관이라는 이름이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더 적합한 명칭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개발 및 관광지 활용방안 강구 등 좀 더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연수의 방문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인 캠브리지 양로원 견학 및 관계 직원과의 간담을 통해 세계적인 복지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복지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우리시 노인 복지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

■ 캠브리지 양로원(Raeburn Rest Home)

- 한적한 농촌마을에 잘 가꾸어진 정원이 아름다운 캠브리지 양로원은 치매를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즉각적인 진료 또한 가능하다.
- 양로원은 자신들의 시설을 ‘가정적인 호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입주자(뉴질랜드식 표현, 혹은 거주자) 들의 외출, 휴가, 각종 시내 활동 등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한다고 한다.
- 모든 식사는 시설 밖이 아닌 시설 안 식당에서 요리되며, 식당은 거주자에게 오픈되어 있다.
- 거주자들은 시설 입소가 아닌 자신들의 집에서 쉬는 것 같이 인식하고 있으며, 정신병 치료와 호스피스 치료 또한 병행하고 있다.



양로원 입간판



공식방문 기록



회계담당자와의 간담



단체사진 및 기념품 전달

- 시설 입소는 70세 이상의 노인만이 가능하며, 컴퓨터교육, 각종 취미 교육 등을 통해 은퇴자를 위한 “퇴직마을”을 지향한다.
- 복지국가답게 기본적인 연금혜택을 받는 자는 거주할 수 있으며, 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하여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며, 정기적으로 가족이 방문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할 경우 가족 또한 시설 숙식(면회시)이 가능하다고 한다.
- 거주자는 독립생활 및 반독립생활 중에 자신이 원하는 거주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독립생활은 비교적 건강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자들이 이용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반독립생활은 모든 식사를 제공받으며, 일반적인 한국의 요양원 입소자와 같은 생활을 한다. 주로 연령대가 높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입소자들이 선택하는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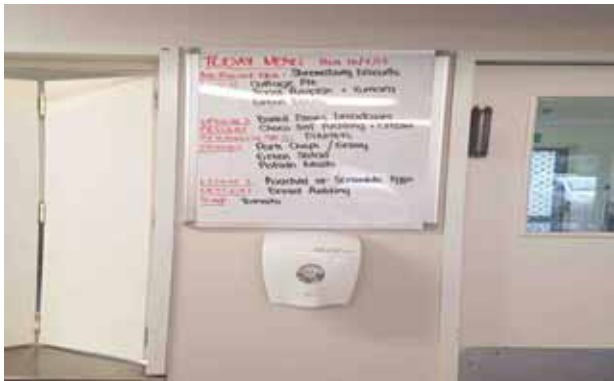
일반적인 독실의 모습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욕실



여가시설(포켓볼)



금일의 식단표와 개방된 식당의 모습

◎ 소감 및 시사점

-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과 화사한 꽃들 우리 일행의 캠브리지 양로원에 대한 첫인상은 바로 그것이었다. “입소자”가 아닌 “거주자”, “퇴직시설”이 아닌 “마을” 캠브리지 양로원의 소개는 이 두 마디로 충분했고, 우리 연수단에 인상적으로 다가왔으며,
- 흔히 우리나라에서 노인시설은 어두운 이미지로 다가오곤 한다. 그러나, 캠브리지 양로원의 모습은 첫인상과 마찬가지로 밝고 작은 마을 같은 인상으로 다가왔다. 24시간 의료 케어 서비스는 물론 특히 입주 전에도 즐겼던 취미 활동을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각종 시설들이 인상적이었다.

- 회계책임자는 자신들의 속해 있는 상급 단체(Oceania Healcare) 차원의 회계 부분과 시설의 보안 유지상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뉴질랜드의 은퇴자는 보편적으로 캠브리지 양로원 수준의 노후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개개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입주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귀뜸해주었다.
-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요양병원 입소비는 월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재산이 없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다. 우리 연수단은 시가 정책적으로 빈곤층 노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았다. 금전적 지원은 간단한 해결책이긴 하나, 시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중앙과 연계해 노인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및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해밀턴 폐수처리장, 타우포 지열발전소, 로투루아 시청 등 뉴질랜드의 환경분야 및 행정분야 공공기관 견학을 통해 선진 환경 분야 및 선진 행정 분야의 운영체계를 둘러보고 우리시 환경분야와 행정분야 발전 방안 모색

해밀턴 폐수처리장(Hamilton Wastewater Treatment Plant)

- 430km²에 이르는 마오리 문화에 가장 중요한 강인 와이카토 강줄기에 위치한 해밀턴 폐수처리장은 뉴질랜드에서 하나 밖에 없는 오수와 폐수 동시 처리장이다.

- 1960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1975년 완공, 폐수 정화를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주변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주요 시설로 부상하였다고 한다.
- 2001년, 2007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시설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으며, 관계 직원의 말에 따르면 비록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지만 수영을 해도 좋을 정도라고 자부하였다.



기관 PPT 브리핑 및 질의



저장소에 대한 설명



정화된 수질 시연



단체사진 및 기념품 전달

■ 타우포 지열발전소(Wairakei Power Station)

- 1958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습식 지열발전소인 타우포(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는 타우포 화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에서 분출되는 수증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축복으로, 뉴질랜드 전기사용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타우포 지열발전소

■ 로토루아 시청(Rotorua Lakes Council)

- 1883년 설립된 로토루아 시는 그 명칭부터가 마오리어로 본래 마오리족 주 거주지였으나 1870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인들이 이주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 마오리족의 전통을 간직한 도시답게 뉴질랜드의 주요 관광도시이며, 지방자치제가 잘 정착된 뉴질랜드답게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고유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 뉴질랜드는 67개의 Council로 이루어져 있으며, Rotorua Lakes Council도 그 중 하나이다.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며 일종의 의원내각제와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 주요 사업 추진 및 위원회 활동 등에 마오리족과의 연계를 특히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마오리족 소유가 많아 마오리족과의 협의가 없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
- 세계적인 복지 국가답게 복지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및 집값 안정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복지 분야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시정을 추진한다.



로토루아 시청 정문



로토루아 시청 내부

◎ 소감 및 시사점

- 해밀턴 폐수처리장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폐수처리장 중 하나라고 한다. 정화 담당 직원은 물을 직접 받아 보여주면서, 마시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정화 능력을 자랑하였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만큼 공업이 발전하지 않아, 폐수처리 시설의 장비나 규모가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었으나, 그들의 철저한 직업 정신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으며,
- 지열발전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포항시”에서 추진한바 있어 포항시 지진과 더불어 주목받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열발전소가 지진이 원인으로 지목되어 건설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뉴질랜드의 천혜의 자연환경이 더욱 부러웠다. 지열발전소는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하며, 또한, 24시간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 로토루아 시청 1층 중앙에는 동그란 민원데스크가 있었다. 직원 몇몇이 로비에서부터 민원인을 맞이하고 해결 가능한 민원은 즉각 응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우리시에서 시청 입구에 청원경찰과 감사담당관 직속민원실이 위치하고 있으나, 로토루아 시청의 민원 응대방식이 좀더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청사 구조상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신청사 추진시 이 같은 아이디어를 적극 어필해야 할 것이다.

IV. 연수후기 및 자체 간담내용

- 7박 9일의 일정으로 남반구에서 가장 복지선진국이라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공공도서관, 복지기관, 환경시설 등을 방문, 견학하여 그들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나 공공기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 등은 대단히 특기할만한 것으로 우리 연수단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시 실정과 비교하여 의정활동 및 시 정책에 반영, 모든 시민이 살기좋은 익산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 또한, 복지 못지 않게 관광대국인 두 나라의 주요 관광자원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소한 손상시키면서 반면에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가미하는 모습에 그들의 관광대국으로 성장한 비법을 엿볼 수 있었다.
- 물론, 그들이 가진 자원과 환경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단순 자원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복지와 환경에 대한 마인드는 분명 배울 점이 많았다. 은퇴자를 위한 안정된 의료, 생활 서비스와 출산 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 혜택, 대학교육에 대한 각종 혜택 등은 그들이 왜 복지선진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인지 알 수 있게 해주었다.
- 우리시의 예산의 40% 이상이 사회복지 예산이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계각층의 시민이 있으며, 출산율 제고라는 시대적 과제 또한 부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시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10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과 함께 시민의 고충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 뉴질랜드는 3자녀 이상의 가정에 경우 차량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한다. 차량을 지원하는 이유는 가족 5명은 5인승 차량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우리시는 최근 인구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시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물론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시민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연수 기간 중 의원 간의 많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간담 시간을 가졌다. 노인의 건강과 우리시 효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었다.
- 이번 국외연수에서 채득한 선진 사례 및 일부 아이디어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입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즉각적으로 도입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은 2019년도 위원회 운영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참가 의원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번 국외연수가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연일 이어지는 연수일정과 자체간담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의원 및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